



[산업] 두산인프라코어
인도네시아 BBI와 MOU
동남아 엔진시장 공략
06



Life

[라이프] 이케아 코리아
도심속으로
기흥·동부산에 점포
11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방안 오디션 방식으로 해법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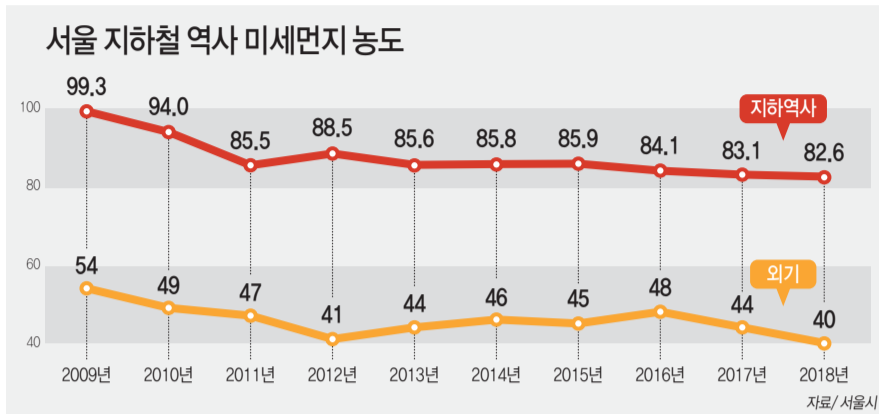
총상금 7.5억 '서울 글로벌 챌린지' 토너먼트 방식으로 혁신솔루션 찾아 서울, 전 세계 혁신기술 각축장으로

서울시가 지하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와 같은 글로벌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도시 문제의 혁신솔루션을 찾는 국제 경쟁형 R&D인 '서울 글로벌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쟁형 R&D는 하나의 주제를 두고 다수의 연구기관이 기술력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중간평가를 통해 일부 탈락자를 선정한 후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포츠 경기의 토너먼트나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경쟁 방식과 유사하다.

시는 "최근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수요가 점



차 증가하면서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단일주제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혁신기술과 융·복합한 개방형 R&D로 전환하는 추세"라며 "서울 글로벌 챌린지는 국내 지자체 가운데서는 서울시가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서울 글로벌 챌린지는 서울시가 시민의 수요가 많고 난도가 높은 도시 문제를 도전 과제로 제시하면 전 세계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시제품 등을 개발해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하철, 터널, 한강 교량 등 서울시정 현장이 테스트베드(실험공간)로 개방된다.

시는 단계별 평가를 통해 우수 제품과 솔루션에 연구비를 지원한다. 최종 우수 제품과 솔루션은 서울시가 공공 구매에 시정에 적용한다.

시는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 글로벌 챌린지를 상시 플랫폼으로 운영, 매년 새로운 솔루션을 도출할 계획이다.

진대제 서울 글로벌 챌린지 조직위원

장은 "시민 민원의 1순위가 미세먼지"라며 "천만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혁신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첫 번째 도전 과제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역사의 미세먼지 농도는 10년 전과 비교해 약 17% 감소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2009년 99.3 $\mu\text{g}/\text{m}^3$, 2012년 88.5 $\mu\text{g}/\text{m}^3$, 2015년 85.9 $\mu\text{g}/\text{m}^3$, 2018년 82.6 $\mu\text{g}/\text{m}^3$ 로 나타났다.

시는 "시민들이 보다 개선된 지하철 대기환경을 요구하고 있어 '서울지하철 미세먼지 저감방안 도출'을 과제로 내년 2월까지 첫 번째 서울 글로벌 챌린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상금은 7억 5000만원 규모다.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희망자는 9월 9일~11월 22일 '신기술접수소'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는 지하철 터널·승강장·전동

차 중1곳을 골라 해당 공간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이나 솔루션을 제안하면 된다.

총 2단계의 평가를 거쳐 참가팀 일부가 탈락하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 서면·대면평가를 통과한 제품·솔루션은 2단계에서 실제 지하철 터널(6호선 효창공원역 등 5개역)과 승강장(6호선 이태원역 등 10개역), 2호선 전동차 내부를 실험공간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검증받는다. 시민도 평가에 참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테스트베드로 2호선 전동차(초과 차량)를 선정한 이유는 새로운 시설물 부착 시 전동차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대·폐차 예정인 차량으로 고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우수 1개팀에 5억원, 준우수 1개팀에 1억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우수 제품과 솔루션은 내년 2월 6일 '2020 미세먼지 엑스포'에서 공개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박원순 시장 "불매운동 타깃은 아베 군국주의" 경기도, 택시 3만7000여대 서비스 평가

日 시민단체 '희망연대'와 만남 한일관계 개선방향 논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목표는 일본이 아닌 아베 신조 정권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장에서 일본 시민단체 '희망연대'의 시라이시 다카시 대표, 야마자키 마코토 국회의원 등을 만나 '한국과 일본 시민들의 미래를 향한 연대'를 화두로 만담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한국 시민사회가 강력한 불매운동을 벌이지만 그것이 일본 자체에 대한 적대감이 아닌 아베 정권과 부당한 경제보복, 군국주의와 일방주의가 타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베 정부의 부당한 조치는 오랜 시간 많은 위기와 갈등에도 평화·상생적으로 발전해온 한일관계를 열어볼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이 21일 일본 희망연대와 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

게 만들고 일반적으로 확립된 자유무역의 국제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사회는 강제징용자와 위안부 문제, 역사 교과서 왜곡 등 한일 과거사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해결을 위해 함께 해왔다"며 "과거사를 용기 있게 직시하고 피해자들과 손을 맞잡아준 일본 시민과 시

민사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일본 희망연대의 시라이시 다카시 대표는 "아베 정권은 일본에 혐의의식을 부추기고 한국의 보수 반동 세력과 연동해 문재인 정권을 공격한다"며 "내우를 외환으로, 즉 소비세 인상과 연금 문제 등의 국내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비열한 정책이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우수법인에 인센티브 지급

경기도는 올해 7~10월 도내 192개 택시법인과 31개 시군 개인택시조합의 총 3만7551대를 대상으로 '2019년도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도내 택시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질을 향상함으로써 도민들의 택시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경기도가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한 제도다.

우선 택시법인은 '경영평가'와 '모니터링 평가', '고객만족도 평가'를, 개인택시조합은 '모니터링 평가',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이중 '경영평가'는 택시법인을 대상으로 법규준수와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 등을 확인한다.

조사요원이 직접 승객으로 탑승해 실시하는 '모니터링 평가'와 하차승객대상 만족도를 조사하는 '고객만족도 평가'는 친절도, 차량상태, 적법·안전 운행여부, 택시요금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30개 법인과 전년 대비 점수 상승도가 큰 3개 노력우수 법인 총 33개 법인에는 시설·장비 개선 사업비 3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우수 33개 법인(상위 30위 법인 + 노력우수 3개 법인)과 상위 10개 시군 개인택시조합에게는 운수종사자 복지 지원비(건강검진비, 자녀장학금, 가족 여행 지원금)로 사용할 수 있는 7억 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소 'U헬스존' 설치

직장인 건강관리 공간 보건소 등에 마련

서울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건강관리 공간인 'U헬스존'을 보건소 등에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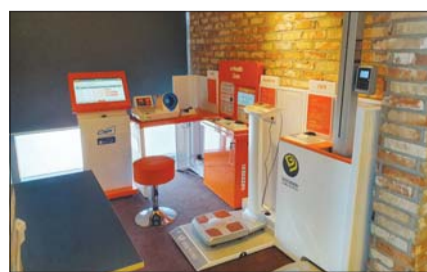
시는 'U헬스존'을 도입해 시민의 대사증후군 자가관리를 지원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한다.

U헬스존 방문자는 본인 인증 후 체지방량,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있다. 측정 결

과는 무인단말기나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된다. 이를 통해 비만, 혈압, 당뇨 관리가 필요한지 알 수 있다. U헬스존은 보건소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설치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헬스케어 업체 (주)헬스맥스와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보건



U헬스존 모습. /서울시

소 방문자뿐 아니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사증후군을 찾아가서 관리할 것"이라며 "U헬스존" 운영으로 시민 편의와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1일 오후 2시 시 전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진행했다.

소방기본법(제21조) 개정으로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이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운전자가 알아야 할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편도 1차로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의 진로를 이동하며 저속으로 이동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운행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소방차량은 2차로로, 일반차량은 1·3차로로 양보하면 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소방차 우선 통행 방해 차량 단속에서 총 4건을 적발해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같은 기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차 단속을 통해 309건을 적발, 총 12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소방차 주변에 주·정차시 기존 2배인 8만~9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2시간 이상이면 9만~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정 기자